

2026년 7월 8일

#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 풍부한 유동성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2026년 1분기 한국 자금순환 통계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국내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이 크게 확대됐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비금융법인은 일반적으로 자금 부족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순자금운용을 기록했다. 이는 실물투자를 웃도는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며 기업의 자금여력이 크게 개선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도 전 분기 67조원에서 79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초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차입이 감소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은 34조원에서 61조 4천억원으로 확대됐고, 금융기관 예치금도 12조 8천억원에서 28조 4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기관 예치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의 단기 및 장기 저축성예금은 모두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이 단순히 정기예금에 머물기보다 주식과 투자펀드 등 자본시장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정부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19조원에서 23조 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국외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84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금공급 능력이 한층 강화됐음을 시사한다.

1분기 자금순환 통계는 국내 경제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이 실물투자를 웃돌며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로, 시중 자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유동성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풍부한 순자금운용은 금융시장에 일정 수준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국내 경제주체의 순자금운용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 축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질 경우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여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자금순환 통계에서 확인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확대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